

한반도 동향

2023년 4월

- I. 한반도 일지
- II. 북한 매체 주요 보도
 1. 대 내
 2. 대 외

편집책임 장철운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작성자 권주현 북한연구실 연구원
 김아영 인도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용혜민 평화연구실 연구원
 탁민지 기획조정실 연구원

김세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안정은 기획조정실 연구원
 윤훈희 인도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이 달의 주요 동향

한국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민방문(4.24.~28.) ... 「워싱턴 선언」 등 채택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합의 ...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강조

북한

김정은, 화성-18형 ICBM 첫 시험발사 현지지도 ... 남북 간 모든 통신선 무응답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 지도 ... 김여정, 한·미 정상회담 비난 입장 발표

미국

北 화성-18형 시험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했으나 성과 별무
 미하원의장,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공동 기자회견 ... NSC 국장, 韓과 '사실상 핵공유' 아냐

중국

한·미 정상회담 대만문제 논의 관련 주중 한국대사 초치 ... 주북 중대사 2년 만에 평양 부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 등 각각 방중 및 정상회담 개최

러시아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전쟁 개입' 의미라며 경고
 핀란드의 NATO 가입에 반발 ...中俄 군사협력 강화 및 인도와 FTA 논의 각각 진행

일본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및 외교장관 회의 일본에서 각각 개최
 日외무상, 방중 및 NATO 외교장관회의(벨기에) 참석 ... 기시다 총리 노린 폭탄테러 발생

I

한반도 일지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1. (토)	북한-대외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조선중앙통신) -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령토에 배치하든가 혹은 자체로 핵무기를 만들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비난 - “우크라이나 당국이 뒤일을 내다볼 초보적인 의식도, 그 후과를 감당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참화를 자초”했다고 발언
4. 2. (일)	북한-대외	• 조선중앙통신 논평(조선중앙통신) - 한·미 군사훈련 프리덤 실드, 쌍룡훈련과 관련하여 “적대적 행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비난
	일본	• 하야시 외무상 중국 방문 - 리창 총리와와의 면담, ‘일·중 양국 정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설적이며 안정적 관계’ 구축을 위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추진’ - 왕이 당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의 회담, 日, 동중국해 정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교환…中, 중국의 핵심이익을 위협하는 미·일 관계는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 - 친강 외교부장과의 회담, 日 베이징에서 발생한 일본인 구속사건에 대해 항의, 일·중 양국의 해상-공중 핫라인 설치 완료 환영, 동중국해 자원개발 문제는 ‘2008년 합의’를 추진해야 할 것, 양국은 한·중·일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을 재개할 것에 대해 의견 일치…中, 지속적인 중·일관계를 위해서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려 표명, 미국은 반도체문제 등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조장, 일본은 미국의 악행을 도와서는 안될 것
4. 3. (월)	북한-대내	• 김덕훈(내각 총리), 평안남북도 농장·신의주화학섬유공장·12월5일청년광산·락원기계종합기업소·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현지요해
	한·미·일	• 한·미·일, 대잠전훈련, 수색구조훈련 진행(4.3.~4.4.) -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울곡이이함, 구축함 최영함, 대조영함, 군수지원함 소양함,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니미츠함,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더함, 웨인 E 메이여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우미기리함 참가 - 국방부, “이번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SLBM 등 수중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 - “한·미 해군이 보유 중인 수중무인표적(EMATT)을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북한 수중위협에 대한 3자의 탐지, 추적, 정보공유, 격멸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미국	• “북한 핵실험 징후 현재로선 없어…상황 주시” -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 북한의 핵실험 임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징후도 보고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답변
	중국	•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향모 전개’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4. (화)	북한-대내	- 평양체육관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4.3.) 보도 - 리일환(당중앙위 비서), 김일국(체육상) 등 참가 및 당중앙위 축하문 전달
	북·중	왕야전 북한 주재 중국대사, 내정 2년 만에 평양 부임
	한국	- 통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반출 승인 2억 4,000만 원 상당의 영양물자이며, 단체명이나 수령 기관 등은 공개하지 않음. - 통일부 당국자는 “신청이 있는 경우 요건에 부합하면 계속 승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러시아	정부 대변인, 핀란드 NATO 회원국(31번째) 공식 가입 관련 러시아 안보에 대한 침해라며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 표명
4. 5. (수)	북한-대내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4.4., 화상) 보도 - 김덕훈(내각 총리) 회의 진행 및 박정근·양승호(이상 내각 부총리) 참가 1.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 총화 및 토론 - 조선기자동맹 제9차 대회 진행(4.3.~4.4., 평양) 보도 - 리일환(당중앙위 비서) 등 참석 1) 중앙위 사업총화, 2) 규약 개정 3) 중앙지도기관 선거 의정 승인
	한국	- 尹 대통령, 北 통일전선부 대남 간첩 활동 관련, “통일부도 대응 심리전 준비 필요”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점검 회의)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고,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 거듭 확인 “한·미동맹은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 보강”...“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 “북한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 “북한 인권침해자에 대해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며 “올해 안에 ‘신통일 미래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
	한·미	-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미 B-52H 전략폭격기 한 달 만에 한반도 전개 - 우리 공군 F-35A 전투기, 미 F-35B·F-16 전투기 참여 - 이번 훈련은 적의 공중위협으로부터 전략폭격기를 엄호하는 훈련으로 양국 공군의 상호 운용성 및 연합작전수행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 - 동아시아 선임보좌관 방한...尹대통령 국민방미 조율 -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미국	- 美 매카시 하원의장-대만 차이잉원 총통, LA서 공동 기자회견 - 美, 대만에 무기 판매 지속해야 - 中, 차이잉원 총통이 방문한 미 허드슨연구소, 레이건도서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발표
	일본	- 하야시 외무상, 벨기에서 개최된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 우크라이나, 폴란드, 영국 및 NATO 사무총장 등과 회담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6. (목)	북한-대외	• 한대성(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 주재 상임대표) 담화(조선중앙통신) -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되어있는 가장 정치화된 협잡문서”이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행위”
	한국	• 통일부, 尹 대통령 ‘심리전’ 발언 관련, “북한의 실체를 국민께 자세히 알려라는 취지로 이해” - “북한의 불순한 기도에 우리 국민이 넘어가지 않도록 통일부가 심리전 대응을 잘 해야 하고 국민이 올바른 대북관을 갖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 - “북한의 참혹한 인권 정보가 널리 알려져 올바른 대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 대응심리전의 대상이 우리 국민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함. • 통일부, 北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중지 촉구 - 2022년 7월,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개성공단 버스 운행 포착 - 정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북한에 개성공단 무단 사용 중지를 재차 요구하려 했지만 북한의 무응답으로 통지문 발송에 실패...며칠간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 • 軍, “北, 지도부가 결심하면 언제라도 핵 실험이 가능한 상태”(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북한이 핵탄두 대량생산 및 전력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 북한이 지난 달 28일 공개한 전술핵무기용 핵탄두 ‘화산-31’을 소형핵탄두로 규정
	한·미	•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개최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 퍼레이드에 따른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가상자산 탈취 및 해외 북한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 -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 - 북한의 국경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독려 -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한·일	•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개최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 환적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 방안 협의 및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한·일 간 협력 강화 - 한국 측은 납북자 문제뿐 아니라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 강조, 양측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협력을 강화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6. (목)	미국	• 재무부, '디파이 불법 금융 위험 평가' 보고서 발간 - 재무부, '디파이 불법 금융 위험 평가(Illicit Finance Risk Assessment of Decentralized Finance)'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개인 간 금융 거래를 의미하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를 악용하고 있다고 평가 - 재무부는 특히 북한이 미국과 유엔 등의 제재 압박을 받으면서 갈수록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와 디파이 서비스에서 가상자산을 훔치고 있다고 지적 - 그 사례로 북한과 연계된 해킹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은 2022년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업체 '엑시 인피니티'와 2020년 블록체인 기술기업 하모니에서 7억2천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소개 • 의회, '尹 연설' 공식 초청 "동맹 70년, 한·미관계 매우 중요" -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4명의 의회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27일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을 공식 초대 및 초청장 공개 - 4일자로 작성된 초청장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특히 우리의 파트너십 성과를 되돌아보고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글로벌 평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하다"고 언급
	미·일	• 미·일 메콩 에너지 파트너십 계획 발표 - 미국과 일본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메콩 우호 고위 관리 회의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과 함께 일·미 메콩 에너지 파트너십(Japan-US Mekong Power Partnership: JUMPP) 행동 계획을 발표 - 2019년 8월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인 메콩' 건설을 위해 JUMPP를 제시 - 이번 실행계획에 설명된 기술 지원에는 풍력, 태양열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청정 에너지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력 시장 분석 및 로드맵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 기존 국경 간 전기 상호 연결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문 등의 지원내용이 포함
	중국	• 외교부 대변인, 차이잉원 대만 총통 방미 관련 성명 발표 - 미국의 '대만 독립'을 묵인하는 듯한 행동은 미·중 공동성명의 위반...하나의 중국 정책은 국제사회의 지배적 합의이자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
	중·프랑스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중 및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개최(베이징) - 중·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양국 관계 증진을 약속 - 식량, 과학기술, 항공, 원자력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에 대한 양자 협력 문서 서명 - EU 집행위원장 함께 방문, 우크라이나 전쟁 종단을 위한 평화협상 개시를 한 목소리로 촉구...러시아는 중국에 대해 중재 잠재력이 있지만 정치적 해결 기미가 없다고 일축
	기타	• 사우디아라비아·이란 외교장관,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 베이징서 개최...중국의 역할에 감사 - 지난 3월 베이징서 비밀회담을 통해 국교정상화 합의...대사관 설치 등 세부 사항 논의 -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 '양국 관계 개선 환영...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지속할 것'
4. 7. (금)	북한-대내	• 태양절 관련 행사 - 중앙사진전람회 개막(4.6., 인민문화궁전) 보도, 리일환(당중앙위 비서), 최희태(평양 시민위원회 위원장), 리명철(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등 참석 -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개막(4.6.,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 보도, 리성학(내각부총리), 김승두(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정남(기계공업상), 김창석(경공업상) 등 참석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7. (금)	북한-대외	- 왕야전 북한주재 중국대사,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 수여 - 박명호(외무성 부상) 등 참가
	한국	-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접견 - 권영세 장관, 미국측과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요성 강조 -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를 확장하면서, 외교적 해결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한·미·일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공동성명 채택 ‘北 ‘핵심 돈줄’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 3국은 “우리는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에 우려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힘. - 이어 “우리는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도 깊이 우려한다”며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부연
	일본	- 하야시 외무상 기자회견, ‘개인 청구권을 포함하여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 마츠노 관방장관 기자회견, ‘4월 13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및 수출입 금지 조치를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4. 8. (토)	북한-대내	- 수중 전략무기체계 시험 진행(4.4.~4.7.) 보도 - 국방과학연구기관은 “4월 4일 오후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에서 시험에 투입된 핵무인 수중공격정 《해일-2》형은 1,000km의 거리를 모의하여 조선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71시간 6분간 잠항하여 4월 7일 오후 목표가상수역인 함경남도 단천시 룡대항 앞바다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전투부가 정확히 수중기폭” - 김정은 추대 11주년 관련 행사 - 중앙사진전 개막식(4.7., 옥류전시관) 보도
	북한-대외	- 시진핑 중국 주석, 3연임 관련 김정은이 보낸 축전에 대한 구두친서 발송(4.7.) 보도 - 시진핑은 김정은이 제일 먼저 축전을 보낸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두 나라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조관계에 대한 전략적 인도를 강화하여 두 나라 사회주의위업의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켜나갈 용의가 있다”고 언급
	중국	- 대만 포위 형태의 전투 대비 순찰과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 실시 - 제공·제해권 장악 및 정보 장악, 대만 내 중요 목표물 모의 타격, 항공모함 참여를 통한 대만 봉쇄 연습 등 진행
4. 10. (월)	한국	“北,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통신선 무응답” - 통일부·국방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업무 개시 및 마감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힘. - 연락사무소 통화는 이틀째(7, 10일), 군 통신선 교신은 나흘째(7, 8, 9, 10일) 답하지 않음. - 통일부,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10. (월)	미국	•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기밀 문건 유출 관련 정례브리핑 -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미국이 한국 등 동맹을 감정한 정황이 드러난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된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같으며, 한국은 역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서 한국과 여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 • 미국-대만 국제기구 워킹그룹 회의 개최 - 미국 재대만협회(AIT)와 주미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CRO)는 미국 국무부, 대만 외무부 및 기타 기관 대표를 소집하여 유엔 시스템 및 기타 국제 포럼에서 대만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 - 양측은 글로벌 공중 보건, 항공 안전, 기후 변화 및 환경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 해결과 기술 표준 및 경제 협력을 공동으로 향상시키는 기회에 대해 의견을 교환
	러시아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 유출 사건 관련 미국의 첩보 활동을 꼬집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감시 대상일지 모른다고 주장 - 문건 유출의 배후로 러시아가 주목된 데, 모든 탓을 러시아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
4. 11. (화)	북한-대내	•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 지도(4.10. 당중앙위 본부청사) 보도 - 한반도 “안전상황의 엄중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에 대처해 방위력과 전쟁준비를 더욱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 - “군사적 행동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편제적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 • 김덕훈(내각 총리), 황해북도·황해남도 농업부문 사업 현지요해 • 태양절 관련 행사 - 중앙미술전시회 개막(4.10., 조선미술박물관) 보도, 리일환(당중앙위 비서) 등 참석 - 영화상연주간 개막식(4.10. 평양국제영화회관) 보도, 조경준(당중앙위 부부장), 리명철(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등 참석 • 제36차 전국과학기술축전 시작(4.10.) 보도
	한국	• 통일부, 장관 명의 대북성명 발표 - 통일부, 북한의 통지문 접수 거부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군 통신선 무응답 관련,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 -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설비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재산권 침해”임을 밝히며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 -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 - 통일부 장관 성명은 2013년 류길재 장관의 개성공단 문제 관련 회담 제안 성명 후 약 10년 만임. • 국가안보실 1차장,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해 미국 방문(4.11.~15.) -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과 의제 사전 조율 - 북한 문제, 경제안보, 지역·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11. (화)	한·미	• 오스틴 美 국방장관, 이종섭 국방장관에 ‘도·감청 의혹’ 전화로 설명 - 이종섭 국방부 장관-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최근 불거진 미국의 대통령실 고위 인사 도·감청 의혹 관련 논의 - 오스틴 장관은 통화에서 미국의 군사기밀 누출 언론 보도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4.11.~12., 워싱턴D.C.) -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등 양국의 국방·외교 주요 당국자가 참석 -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증진을 집중적으로 논의 - 특히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 - 또한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nditions-based OPLAN Transition Working Group: COTWG)’ 회의를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COTP)」의 세 가지 조건 충족과 동맹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
	한·일	• 외교부, 일본 ‘외교청서 2023’ 관련 논평 발표 - 일본 ‘외교청서 2023’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 - 일본은 이날 발간한 ‘외교청서 2023’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주장 - 또한 일본은 한국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 대응에 협력해나가야 할 주요 이웃 국가...‘독도’ 주변에서의 한국의 해양조사활동 및 군사훈련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 향후 일관적 입장으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미국	• NSC 전략소통조정관, 기밀 문건 유출 관련 정례브리핑 -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 기밀 문건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의 위험이 무엇이든 간에 국방부는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매우 신속히 행동했다고 답변 - 이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최고위급 차원에서 관련 동맹, 파트너와 소통하고있다고 답변 • 미국·필리핀 외무·국방 각료 회의(2+2) 개최(워싱턴D.C.) - 미국 측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필리핀에선 엔리케 마날로 외무장관과 칼리토 갈베스 필리핀 국방장관 참석 - 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 정부는 향후 5년에서 10년간 필리핀에 대한 군사지원 등을 담은 로드맵을 수개월 내에 만들고 군사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포함 - 또한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필리핀 해군이 합동으로 항행 등을 진행하는 계획도 최종 승인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12. (수)	북한-대내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5차 전원회의 진행(4.11., 만수대의사당) 보도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회, 강운석·김호철(이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고길선(서기장) 등 참석 -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선거에 관한 문제 등 의안으로 상정
	한국	•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방한한 캐나다 상·하원 의원 등 면담 - 유엔 파우 우 상원의원 등 캐나다 상·하원 의원 6명과 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권영세 장관은 북한 정세를 공유하고,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을 설명 -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못지 않게 북한 인권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강조 - 캐나다 측은 △북한 변화 방안,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점 사항,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
	미국	• NSC 대변인, 북한 ICBM 실험에 대한 성명 - 에이드리엔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이번 북한 ICBM 실험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우려 - 또한 모든 국가들이 이런 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에 진지한 협상을위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은 즉각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외교적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 인도태평양 사령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 -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 -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
4. 13. (목)	북한-대내	• 김덕훈(내각 총리), 평양시 서포지구·화성지구 살림집 건설정형 현지요해 • 태양절 관련 행사 - 제8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개막식(4.12.,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 보도, 리성학(내각부총리), 전경철(당중앙위 부부장), 승정규(문화상) 등 참석
	한국	• 합참, “北,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 포착” -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되었으며,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 - 군 당국은 신형 고체연료 미사일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조태웅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 개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 규탄 - “한·미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시행해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GSOMIA)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 -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강구” • 통일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탈북민 피폭 조사” - “5월부터 북한 함북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89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피폭 검사를 실시할 예정” - 2006년 이후 탈북한 길주군, 인근 지역 주민 중 희생자 80명과 기존 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9명이 검사 대상…통일부는 2017, 2018년에 풍계리 인근 출신 탈북민 4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를 실시하였음.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13. (목)	한국	- 정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0명 대상 판결금 지급 예정 - 외교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4.14(금) 기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
	한·미·일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끌어내기 위해 3국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기로 협의
	중·러	- 중·러, 제4차 아프간 주변국 외무장관 회의 참석 계기로 별도 양자 회담 개최 - 지난 3월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 성명문 이행을 위해 경제적 협력 강화 -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정치적 합의 및 평화 대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할 것... 러, 복잡한 이슈에는 구조적 해결이 필요, 진영 대결을 반대하고 정치적 합의를 추진할 것
	일본	마츠노 관방장관 기자회견, ‘북한에서 발사한 ICBM이 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어 전국순간알람시스템(J-Alert)을 발동하였으나, 일본에 낙하지 않았음을 확인’
4. 14. (금)	북한-대내	- 김정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 현지지도(4.13.) 보도 “1계단은 표준 탄도비행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 분리시동 방식으로 미사일의 최대속도를 제한하면서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 특성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진행”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발언 - 딸 동행 사진 게재 - 김정은, 국방과학연구부문 성원들 평가 -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에 기여한 관계자 10여 명에게 노력영웅 수여 제의 - 태양절 관련 행사 - 웅변모임 진행(4.13., 인민문화궁정, 중앙로동자회관) 보도, 전경철·최학근(당중앙위 부부장), 송정규(문화상) 등 참석 - 덕성발표모임 진행(4.13. 만경대혁명사적지) 보도, 문철(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 위원장) 등 참석, 태양절 요리축전 진행(4.11.~4.13., 평양면역) 보도
	북한-대외	-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 대답 - 일본이 「2023년 외교청서」에서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언급한 것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적 립장과 사기와 기만으로 가득찬 흥심을 다시 한 번 드러내놓았다”고 비난 - 한국과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위협에 적극 동조하면서 군사대국화 야망을 꾀하는 일본이 북한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에 대해 논하는 것은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내정간섭”이라고 주장
	한국	- 국방부, 북한의 화성-18형 시험 발사(4.13.) 관련, “고체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시험발사” “체계개발 완성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평가 - 통일부, 2023 통일백서 출간... ‘한반도 비핵화’ → ‘북한 비핵화’ 공식화 2022년 한 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 -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여 기술 ‘북미’, ‘북미관계’는 ‘미북’, ‘미북관계’로 변동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14. (금)	한·미	•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미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 한국 공군의 F-35A 및 F-15K 전투기, 미국의 F-16 전투기 참여
	한·미·일	• 제13차 한·미·일 3국 안보회의(DTT) 개최(워싱턴 D.C.) -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마스다 카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한반도와 더 넓은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반복적인 위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확인 -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가운데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또한 미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특히 한·일이 양자 간 체결한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
	중·독일	• 제6차 외교안보전략대화(베이징) 개최...독일 외무장관과 중국 외교부장,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논의 - 독일 외무장관, 러시아를 “침략자”로 칭하며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촉구 - 中,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설적 역할을 지속할 것 • 양이 당중앙 외사판공실 주임-독일 외무장관 회담 - 中, 중국이 독일 통일을 지지한 것처럼 독일도 중국의 독일 통일을 지지해야 - 獨,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
	중·브라질	• 룰라 브라질 대통령, 방중 및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개최(베이징) -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 농업, 에너지, 인프라, 우주, 항공, 혁신사업 등에서 협력을 강화 - 中, 중국의 현대화는 브라질 등 다른 국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중국과 브라질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인류의 공동가치를 추진 - 브라질,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평등, 정의를 위해 양국의 협력 강화
	UN	• 유엔 안보리, 17일 오후 3시 미국 뉴욕 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 개최 발표
4. 15. (토)	기타	•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방중 취소 후 연설문 공개...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다고 중국에 공개 경고 • 제4차 아프간 주변국 외무장관 회의, 사마라칸트 선언 발표 - 아프간 주민들의 생활 환경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아프간과의 대화 필요성 강조... UN의 인도적 지원 필요, 아프간 정부가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 확신 - UN과 타지키스탄이 추진하는 아프가니스탄 주변의 ‘안보 벨트’ 형성의 지원 하에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국제 협상 그룹을 조직할 것
	한국	• “北 경비정, NLL 침범” - 북한 경비정이 백령도 동북쪽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 해군, 경고 통신 10여 회 실시하였으나 북 경비정의 계속된 남하에 경고사격을 했으며, 직후 북 경비정이 퇴각 - 군 당국은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NLL을 침범했을 가능성에 무게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15. (토)	일본	• 선거유세 지원연설 나선 기시다 총리를 노린 폭탄테러 발생 - 사상자는 없으며, 용의자 현장 체포
	러시아	• 푸틴 대통령, 징병 통지를 전자화해 병역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 서명 - 국가포탈에 게시 후 징병통지 효력, 거부시 출국금지...러시아 정부는 동원령 아닌 징병 효율화라고 주장
	기타	•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 일본 삿포로서 개최(4.15.~16.) -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와 원자로 폐로 작업의 꾸준한 진전, 오염수의 투명한 대처를 환영한다는 문구 등 공동성명에 포함 - 영·프, 2030년 시한으로 석탄 발전 폐지를 가속한다는 문구 포함 추진...일본 난색 - 독일 환경장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관한 일본 측 설명에 오염수 방류는 환영할 수 없다고 반발 • 독일 정부, 원자력법에 따라 남은 원전 3곳 가동 중단하며 탈원전 행보...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속 유일한 탈원전 국가 - 원전이 재앙의 근원임을 주장하는 탈원전파와 기후변화 대응을 주장하는 친원전파로, EU 회원국 간 집단대립 양상
4. 16. (일)	북한-대내	• 태양절 관련 행사 -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당, 정권,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사회 안전군 부대, 평양시대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대학 등 명의 꽃바구니 진정 보도 - 태양절 경축 청년학생 야회(평양 김일성광장), 여맹일꾼·여맹원 무도회(개선문광장),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창덕학교), 제8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의 경축 공연(평양) 진행(4.15.) 보도
4. 17. (월)	북한-대내	• 평양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 진행(4.16.) 보도 - 김정은 및 김덕훈(내각 총리), 조용원(당중앙위 조직비서),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당중앙위 비서) 등 당·정 지도간부 참석 - 김정은, 당·정 지도간부들과 준공테이프를 끊고 평양에 5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은 당과 국가가 최종대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라고 연설 • 김정은, 내각과 국방성 직원 간 체육경기 관람 - 딸과 김덕훈·조용원(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리일환·리영길(당중앙위 비서), 김재룡·전현철(당중앙위 간부) 등 동행 • 태양절 관련 행사 - 당중앙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 무력기관 일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꽃바구니 진정(4.17.) 보도
	북한-대외	• 리병철(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에 대한 경고 발표(조선중앙통신) - 미국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를 소집하려는 것 관련, 북한의 당연한 자위권 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묘사하며 문제시하는 것은 북한의 국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 -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 개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지역의 안전 우려에 대해 자국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조치라고 주장 - 북한이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전망적인 위협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정당방위 수단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이렇게 해야만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조선반도 안전상황이 통제권 안에 있게 된다"고 주장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17. (월)	한국	• 박진 외교부 장관, UN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 간담회에서 안보리 진출 추진 등 설명 -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하려는 노력의 일환” - “北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해 UN 사무국 차원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 “전쟁의 고통을 경험한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아픔에 공감하며 국제사회의 전쟁 종식 및 평화회복 노력을 지원” - “이번 방한 및 장관 접견을 통해 우리의 안보리 진출 시 한·UN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 • 권영세 통일부 장관, UN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 간담회에서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 정책’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 설명 - “北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 등 인도적 상황을 중요시...『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北 비핵화 및 北 인권 개선 등 北의 변화를 위해서는 UN 및 산하기관과의 협력이 중요” • 행정안전부, 北 무인기 침공 등 국지도발 대비 훈련 실시 - 중앙부처, 지자체, 군, 경, 소방 등 유관기관 참여해 北 국지도발 상황에서의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한·일	•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2+2’ 형태의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 개최 - 한·일 외교부의 국장·차장급 참석...한·일 양국의 전략환경 및 안전보장, 방위정책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초계기 사건 관련)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국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
	미·일	• 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G7 외교장관 회의(4.17.)와 별도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 G7과 철통같은 미·일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 - 블링컨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최근 한·일 양자 관계의 진전을 축하했으며, 양국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양국은 우크라이나 정세 및 중국을 둘러싼 여러 문제 대응,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대응, ‘남반구’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 교환 •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를 위해 일본 방문...기시다 총리 접견 - 미·일 기후 파트너십 하에 기술 혁신 등의 분야에서 양국 연계의 중요성 확인
	중국	• 친강 외교부장,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회담
	러·인도	• 러시아·인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 러시아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 뉴델리에서 인도 외무장관과 양국 간 FTA에 대한 사전 합의 -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산업 측면에서 밀착...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러시아 석유를 많이 수입하며 무기수입도 증가세
	UN	• 유엔 안보리, 북한의 신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 논의...성과없이 종료 - 장쥘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의 한반도 부근 군사훈련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라며 북한의 ICBM 발사 합리화를 시도,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안보리 회의가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열려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겨냥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17. (월)	기타	• G7, 일본 나가노현서 외교장관 회의 개최 - 대중국 연합전선 형성...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관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 공동성명 채택...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 조약(CTBT)에 서명할 것을 요구
4. 18. (화)	북한-대외	• 김정은, 중국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3연임 축전(3.10) 관련 답전 수신(4.12) 보도 • 김정은,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에 시리아 독립 77주년 관련 축전 발송(4.17.) 보도
	한국	• 박진 외교부 장관, 일한문화교류기금 접견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 - “일한문화교류기금이 양국 간 호혜적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양국 국민 상호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에 변함없이 기여해야”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현대·기아차 美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 타격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 - “배터리 수출에 있어선 저희가 혜택을 받는 나라가 돼” - “IRA가 발효된 작년 8월 당시 ‘북미 내 최종 조립’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차가 없어서 걱정이 많아...尹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 관련 친서를 전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내” - “우리 배터리 3사는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 자체를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돼” • 정부,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 개최, “일본과의 전략적 소부장 협력 방침 정해” -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日과의 협력도 우리 소부장 글로벌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 - “이달 말까지 日이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외교부, “北 다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정례브리핑) - “안보리 이사국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또한 北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긴밀히 소통”
	미국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G7 외교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 -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핵확산 문제에도 초점을 맞췄으며, 일본이 북한의 위험한 탄도미사일 발사, 첨단 원심분리기 가동과 고농축우라늄 축적 등 이란의 핵 활동 확대,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중단과 무책임한 핵 수사, 중국의 불투명하고 신속한 자체 핵무기 구축 등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 것에 감사하다고 언급 - 이어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중단과 무책임한 핵 수사와 함께 북한의 위험한 탄도 미사일 발사와 자체 핵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이란의 핵 활동 확대, 중국의 신속한 핵무기 증강 추구 등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도전이라고 부연
	미·일	• 블링컨 국무장관,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 접견 - 블링컨 국무장관 ‘법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견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미·일 연계 필요...미·일동맹의 역지력, 대처력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경제 관계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 기시다 총리,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활발한 협력이 있었던 것을 환영한다면서 G7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18. (화)	중·러	- 중·러 국방장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회담하고 상호 핵심이익 지지, 외부 간섭 반대를 기조로 양국 군사협력 강화 방침 재확인 - 양국은 양자 및 다자 형식의 합동 순찰 및 훈련이 세계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군사 협력과 무역을 촉진하여 양국군 협력이 새 단계로 격상할 것임을 약속 -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러시아 도착(4.16.) 당일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와 역내 안보 안정 유지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중국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푸틴 대통령은 양국 군 연합 훈련과 전문교류 등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화답
	일본	- G7 외교장관 회의 개최 계기, 일본-이탈리아(4.16.), 독일(4.17.), 영국(4.17.), 프랑스(4.18.), 캐나다(4.18.)와 각각 외무장관 회담 개최 - 중국을 둘러싼 정세 대응 및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 등 북한 문제 대응에 지속적으로 연계하기로 의견 일치 - 하야시 외무상, G7 외교장관회의 '핵군축·비확산 세션'에서 '히로시마 액션 플랜' 소개 -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이 함께 참가하는 NPT 체제를 유지·강화하여 그 안에서 핵군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 중국의 핵전력 확대 우려 및 핵전력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러시아	- 러시아 의회, 푸틴 대통령을 수배한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러시아가 불참하는 국제기관 혹은 해외기구에 조력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 개정안 의결 - 반역죄 형량을 최대 종신형으로 정하고 테러 처벌도 대폭 강화
	기타	- EU 집행위원장, 유럽의회 본회의(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연설에서 일관성 있는 대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 - 대중국 관계를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EU 내부 분열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EU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해 요구해왔으며, 특히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 - NATO 사무총장, 워싱턴 D.C.에서 나토-미 국무부 공동주최 '군비통제·군축·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글로벌 군축 질서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다면서, 군축협정 대화에서의 중국의 역할 촉구 - 러시아는 국제 군축 협정의 다수를 무시·위반·탈퇴함으로써 국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려 하며, 이란과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 프로그램 및 발사체를 개발 중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 -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미국외교협회(CFR) 행사(뉴욕) 연설에서 미중이 주도하는 블록으로 세계 경제가 분열하는 상황에 대해 경고 - 현 미중 양국에 치우친 경제 의존도가 글로벌 무역을 불안하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며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 강조
4. 19. (수)	북한-대내	- 김정은,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4.18.) 보도 - 딸과 박태성(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당중앙위 부부장), 김승찬(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박지민(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등 동행 - 김정은, 국가우주개발국이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 제8기 제5차, 제6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우주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우주과학기술 연구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 높이 평가 - 군사정찰위성 보유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와 의의를 강조하고 정찰위성 획득은 철저히 북한의 국가주권과 정당방위권에 속한다고 주장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19. (수)	북한-대내	• 태양절 관련 행사 - 제8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폐막(4.18.) 보도 •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위한 당초급선전일군회의의 진행(평양시 및 각 도) 보도 • 제10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 개막(4.18.) 보도
	한국	• 尹 대통령,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혹은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어”(Reuter 인터뷰)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당사자들과의 관계와 전장에서의 발전을 고려하여, 우리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만약 남북한 사이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양측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것” - “강력한 핵공격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NATO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준비되어야” - (대만해협 긴장 관련)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세계적 문제” • 외교부, “北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 -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北이 불법적인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 -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
	중국	• G7 외무장관 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 조치하여 항의
	중국·가봉	• 중국-가봉 정상회담 개최 - 중국-가봉 포괄적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체계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 - 中,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 제시...국제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패권주의와 권력정치에도 반대, 내정간섭 반대, 공동의 미래를 위한 인간공동체 형성 강조 - 가봉, 하나의 중국의 정책과 일대일로 정책을 포함한 시진핑 주석의 비전들 지지...인프라, 농업, 관광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러시아	•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전쟁개입 의미라며 경고 -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군사적 유사 행보는 국가들 간 양자 관계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며 한국의 경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에 관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 - 美 국방부 대변인, 한국의 대러조치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의 기여를 높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표명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을 넘어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북·러 밀착 노골화 (4.20.) -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보복 시사 위협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 (4.20.)
	기타	• 프랑스의 집권 정당연합, 대만 방문...대만해협 평화·안정 지원 약속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20. (목)	한국	•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관련 인터뷰) 尹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브리핑) -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 -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 -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줘...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 외교부, “尹 대통령 Reuter 통신 인터뷰, 노코멘트”(정례브리핑) -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관련) “일부 국가 측의 언급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어” - (일본 순시선 독도 인근 해역 출몰 관련)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 일본 순시선 출몰은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어” • 외교부, 주한중국대사 초치 항의 - 中 외교부 대변인의 대만문제에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주한중국대사 초치 - “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 통일부, “2022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지출 779억원, 2021년 대비 2.5배 수준” - 개성공단 기업 및 금강산관광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남북협력기금 지출이 크게 증가 -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총 1조5천671억원(사업비 1조2천690억원)이나 남북관계 사실상 단절에 따라 사업비 집행률 6% 기록
	중국	• 외교차관, 정재호 주중한국대사 초치 - 대만 문제를 북한 문제와 등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중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대한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 - 주중대사,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항상 존중하며, 이는 변함없음’ •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문제에 대한 윤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천성부터 다른 문제, 동일 맥락에서 논의될 수 없어...한국은 양국 국교정상화 공동성명에 따라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길’
	기타	• NATO 대사들, 프랑스 전략핵잠수함 기지 방문...중·러 밀착 속 핵 동맹 재확인
4. 21. (금)	북한-대외	• 김정은, 쿠바 주석(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에 대통령 재선출 관련 축전 발송(4.19) 보도 • 최섉희 외무상, G7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 관련 담화 발표 -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G7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 관련하여,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가 선사했거나 인정해준 데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며 실제적인 핵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 - 북한에게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간섭 행위”이며, 북한은 20년 전에 이미 해당 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하여 조약상의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주장 - G7은 극소수 국가들의 폐쇄된 이익집단에 불과하며 결코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대변하지 않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 보장에 복종하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폄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21. (금)	한국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4월 통일부 직장교육 모두발언) - “견고한 원칙을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만 北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올바른 남북관계, 더 나아가 통일을 이뤄갈수 있어” - “현재 北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세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대화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 -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무분별한 군사 도발을 일삼는 北의 진면목을 국민과 국제사회가 더 정확하게 알수록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가치와 명분도 보다 확고해지고 北의 황당한 꾀변도 힘을 잃을 것” • 통일부, “北 억지 주장과 위협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경청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정세브리핑) - “北 핵·미사일 개발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 “北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도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 • 외교부, 日 기시다 총리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 - “日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日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 -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
	미국	• 당국자 “北 김정은 정권이 인권개선하면 비핵화 진지하단 신호” - 정 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 부대표는 CSIS 주최 회의에서 그동안 “제3자를 통해 구두와 서면”으로 여러 차례 북한에 코로나19와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례 없는 규모의 무기 시험이었다고 답변 - 이어 북한 정권이 주민이 필요한 자원을 계속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권(문제)을 WMD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인권에서 진전을 보인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중요한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고 부연
	중국	• 친강 외교부장, 중국의 현대화와 세계에 관한 란팅포럼 개막식 기조연설 - 대만에 대해 불안한 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 타국을 것 - 韓 외교부, “우리 정부는 한중 양국간 국격을 지키고 예의를 갖춰 상호존중·호혜·공동 이익에 입각해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중국 측도 이에 부응해 언행에 신중을 기하길 바라”
4. 22. (토)	북한-대외	• 김정은,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에 태양절 축전 관련 답전 발송(4.20.) 보도 • 일본 국회의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비난(조선중앙통신 논평) - “전범국 일본에서 해마다, 계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참배소동”은 “인류의良心과 정의에 대한 우롱이며 과거침략전쟁을 미화분식하고 패망의 양강음을 해보려는 복수주의 야망의 발로”라고 비난 - 일본의 군사력은 이미 본토방어 수준을 넘어서 완전한 공격무력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일본의 동향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
	중국·필리핀	• 친강 외교부장 필리핀 방문, 마르코스 대통령 접견 - 中, 필리핀은 편을 고르지 않고 전략적 독립적 위치에 있어야 함…양국의 대화와 상호신뢰를 증진시켜 어려움과 방해를 극복하고, 상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지 - 필리핀, 건전하고 안정된 정상적 궤도에 따라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23. (일)	북한-대내	김덕훈(내각 총리),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농장, 온천군 송현농장, 룡량군 옥도농장 등 남포시 농업부문 사업 현지요해
	기타	-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럽 각국 해군이 대만해협 순찰해야 한다고 주장 - 대만-EU, 경제·상업·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만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에 대한 유럽의 헌신을 촉구 - G7 농업장관들, 일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 -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곡물과 비료 가격 급등 등 세계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깊은 우려 표명 -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을 위해 농지 지뢰 제거, 파괴된 농업시설 복구, 농가 자금 조달 지원 약속
4. 24. (월)	한국	- 尹 대통령, "100년 전 일로 무조건 日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받아들이 수 없어"(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한·미동맹 관련)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이고 무엇보다 가치 동맹" (우크라이나 관련) "우크라이나는 불법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 다양한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한·일관계 관련) "北이 핵을 고도화하고, 연일 미사일 시험을 하는 마당에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 "설득에 있어 저는 충분히 해...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비춰봤을 때 한·일관계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 대통령실, "尹 대통령, (워싱턴 포스트 日 관련) 발언 배경은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언론공지문) "한·일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 ... 유럽에서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듯이, 한·일관계 개선은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할 길"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온 1998년, 김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 - 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정례브리핑)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도 잘 인식해야" "北 개성공단 내 공장 20여 곳을 무단 가동하는 것으로 추측" - 권영세 통일부 장관, "北 주민 인권을 개선해나가는 일은 동포의 아픔을 해소하고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나가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공동 학술회의 개최사) "북한인권 조사기록은 인권탄압으로 고통받는 北 주민에게는 대한민국이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며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경고로서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
	한·미	- 한·미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1명을 동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 - 암호화폐 세탁 등으로 北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을 미국과 함께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24. (월)	중국·쿠바	• 쿠바 공산당 대표단 베이징 방문, 왕이 당중앙 외사판공실 주임 접견
	UN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뉴욕 유엔본부에서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 - 유엔 현장의 원칙 수호를 통한 효과적인 다자주의’ 주제로 안보리 공개회의 주제…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서방국 반발
4. 25. (화)	북한-대내	•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 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진행(4.24.,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 보도
	한국	• 외교부, “北 불법적 사이버 활동 차단 위한 한·미 동시 대북제재 첫 사례”(정례브리핑) - “한·미 양국은 그간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北의 IT 인력과 관련된 차명 계정을 차단하고 불법 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둬” - “(UN 회원국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미제출 관련) 보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
4. 25. (화)	한·미	〈尹 대통령 부부, 미국 국민방문(4.25.~28.)〉 •尹 대통령, “(美 대통령실 초청 관련) 이 사안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어”(4.25., NBC 뉴스 인터뷰) - (NBC 앵커가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느냐?”에 대한 질문 관련)尹 대통령, “일반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이 국가 간에 금지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당신이 그런 신뢰가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 -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관련) “(백악관의)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전장의 상황이 변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할 때가 온다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 - (북핵 관련) “중요한 것은 北이 감히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대만 관련) “대만 문제와 관련된 韓 정부 입장은 일관,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어…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정상공동성명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4.26.) -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 -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北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 - 北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 -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 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 -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北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北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25. (화)	한·미	-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 - IRA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 -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 -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 -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 •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 발표(4.26.) - △ 차관보급 한·미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신설 △ 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 정기적 한반도 전개 △ 대한민국의 NPT 의무 및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의지 재천명 -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 -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 -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北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 -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 •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4.26.) [尹대통령 모두발언] -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 - “北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 -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 -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 -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 -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차세대 신형·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서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쿼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 -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 - “국방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 -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불을 투자”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25. (화)	한·미	-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바이든 대통령 모두발언] - “첨단과학, 우주항공, 민주주의,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 저희가 새로운 협력의 분야를 구축” - “군사적인 협력은 철통 동맹 관계…北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군사 협력을 더욱더 강화 시켜서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 - “한국과 미국은 같이 협력함으로써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 - “윤석열 행정부의 새로운 인태전략을 환영하고 지지” -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이를 위해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등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해” -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러시아가 지금 공공연하게 국제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 [주요 질의응답] - 尹 대통령, 美 도청 논란 관련 “지금은美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美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 - 尹 대통령,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강구, 종전의 핵우산에 기초한 확장억제와는 다르며 최종적 권한은 美에” - 바이든 대통령, “미국 일자리, 제조업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한국 반도체 투자로 경제성장 기여…中 문제가 되지 않아” - 바이든 대통령, “핵무기 한반도 배치 없어, 핵 억지력 강화 취지” - 바이든 대통령,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 한국의 성장은 미국에 도움되어 이해관계 부합” - 바이든 대통령,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 환경,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고, 우리는 경제적 영향력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함께 맞서고 있다”며 “내가 취임한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혁신을 주도하고 미국인들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좋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언급 - 바이든 대통령,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北의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핵 공격을 절대 받아들이 수 없는 상황…이는 北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경고하면서 “위협적인 北의 대응은 나는 협의를 통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 尹 대통령, 백악관 국민만찬 윤석열 대통령 답사(4.27.) -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동한 한·미동맹의 씨앗은 지난 70년간 충실하게 자라나 이제 울창한 숲을 이뤄 …韓이 이뤄온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항상 한·미동맹이 있어” - “한·미동맹은 양국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하고, 인태지역을 비롯해서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 대통령, 美 부통령, 국무장관 공동주최 국민 오찬 참석(4.27.) • 김건희 여사, 故 오토 월비어 모친과 북한인권문제 논의(4.27.) - “北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할 필요가 있어” - “국제사회 전체가 연대해 北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25. (화)	한·미	• 尹 대통령,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美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4.27., 美 펜타곤 방문) -尹 대통령, 美 국방부 청사(펜타곤) 방문 및 미군 수뇌부로부터 NMCC의 전략적 감시 체계와 위기대응 체계 관련 브리핑 청취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서 압도적 대응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北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감행” -“美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 이제라도 北은 핵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 대응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 • 尹 대통령,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 주제 연설(4.28.) -“올해로 70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 -“민주주의는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하는 것, 허위 선동과 거짓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서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다반사”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흔들고 위협하는 독재와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이들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도 있어” -“대한민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北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정부가 최초로 북한 인권 실상 보고서를 공개 출간” • 尹 대통령, 하버드대학 조지프 나이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 진행(4.28.) -“북핵 위협이 눈앞에 온 상황…(워싱턴 선언 관련)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나라에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하는 여론이 있으며,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어”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만의 의무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독자 핵 개발을 안하고 NPT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NATO 식 핵공유 관련) 미국과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 국가와의 문서로 정리된 첫 번째 사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 - (우크라이나 공격무기 지원 관련) “전황을 예의주시,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다양한 옵션 고려…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정책은 없다, 그래서 안된다” - (한·일관계 관련)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국민 간에 과거 식민시절과 관련해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것이라 생각, 미래의 협력이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 간 감정적인 문제, 인식적 문제를 고쳐줄 것, 日의 韓 화이트리스트 전격복귀 결정이 그 사례”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25. (화)	한·미	• 尹 대통령,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美 상·하원 합동회의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 (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연설(4.28.) -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 -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해” -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돼” -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北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北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 -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 “지난해 北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 -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돼” -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 -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 - “한·미 양국은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 •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아산플래넵 2023’ 참석차 방한한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 - 양측은 특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협의 - 이어 김 본부장은 해당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 재단 선임연구원, 고든 플레이크 호주 퍼스 미국아시아센터장, 앨리스 후커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도 만났으며 자칭귀 베이징대 교수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중요성을 강조
	미국	• 법무부, “담배업체 BAT, 대북제재 위반 8,400여억원 이상 벌금 부과” - 법무부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담배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6억2천900만 달러(약 8천441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 - 이는 BAT와 그 자회사인 BAT마케팅싱가포르(BATMS)가 은행사기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해 싱가포르의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 - 매슈 올슨 국가안보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이는 법무부 역사상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이며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최신 경고”라고 부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25. (화)	미국	- 브라이언 벨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수년간 BAT는 북한이 담배 제조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협력했으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네트워크와 연결된 금융 조력자들에게 의존했다”고 지적 - 또한 법무부는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을 공모한 북한 은행가 심현섭(39)과 중국인 조력자 친귀밍, 한린린 등 3명을 기소 - 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군이 소유한 국영 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잎담배를 구매하는 계획에 관여하고 문서를 위조해 미국 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최소 310회에 걸쳐 거래한 혐의
	러시아	• 블라디미르 예르마코프 러시아 외무부 핵 비확산·군비통제국장은 러시아 관영통신 인터뷰에서 핵위기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군사적 정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핵 축소 등 ‘미국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
	UN	•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하라고 촉구 - 포로 즉결처형 명령이 담긴 녹음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된 데 따른 긴급조치…녹음 파일의 진위를 떠나, 전쟁 포로나 전투력을 상실한 병사들의 즉결 처형을 장려할 가능성 우려 - 우크라이나 최소 25건, 러시아 최소 16건 전쟁범죄 정황 기록
	기타	• 대만 부총통, ‘대만해협은 대만과 중국에 공간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넓으며, 미국과 중국 간 경쟁도 관리될 수 있다’
4. 26. (수)	한국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워싱턴 선언, 사실상 美와 핵공유처럼 느끼게 될 것” - “美가 하나의 동맹국에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 - “美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사실상 美와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 • 대통령실, “‘워싱턴 선언’ 中에 사전 브리핑”(고위관계자 발언) -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이 아니며 北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기에 中으로서는 이를 우려하거나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취지로 사전 브리핑” • 외교부, 中 글로벌 타임스 칼럼 관련 “소위 중국 관변 매체의 무례와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어” - 中 관변 매체에서 ‘韓 정부, 美 기쁘게 하기 위해 日에 머리 숙였다’ 보도한 것에 대해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저급하고 무례한 주장” -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발전돼야 할 한중 관계를 오히려 저해하고 손상시키는 것” •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공개 • 김승겸 합참의장, 제5회 인도태평양 안보포럼에 참가 -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최로 열린 포럼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 24개국 군 고위급 인사가 참가해 ‘국가별 가장 우려되는 안보 도전’을 주제로 논의 - 인태지역에서 가장 우려되는 안보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제시하고 단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
	중·우크라이나	• 시진핑 주석-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전화 회담 - 中,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중국은 평화 회담 개최를 지지…지난 2월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입장 재차 강조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중국과 다방면에서 양자대화를 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27. (목)	북한-대내	• 순천화력발전소 창립 4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4.26.) 보도 - 전현철(당중앙위 비서), 양승호(내각 부총리) 등 참가 및 당중앙위 축하문 전달
	한국	• 외교부, “확장억제와 관련된 ‘워싱턴선언’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관국(中)에게도 설명” (정례브리핑) - (中 시진핑 주석 방한 관련) 한·중 양국 간 고위급 인사교류와 소통·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 文 전 대통령, “더 늦기 전에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 복원, 긴장 해소, 평화의 길로 나서길 바라”(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서면 기념사) - “걱정스러운 것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진지한 노력보다는 불신과 반목이 더욱 깊어지는 것으로 이럴 때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평화를 찾는 노력이 중요” -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로 판문점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은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어”
	미국	• 에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한국 특파원단 브리핑) - (韓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실상 핵공유 발언 관련’) “사실상 핵공유가 아니며, 韓 대통령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냐”
	중국	•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 한·미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냉전시대적 사고의 결과, 미국은 진영 갈등을 강화시키고, NPT 체제를 무시…한반도 비핵화에 반하는 것이며 중국은 이를 강하게 반대’ • 제4회 중국-중앙아시아 외교장관회의 시안서 개최 - 내정간섭을 반대하며 중앙아시아를 지정학적 전장이 아닌 윈-윈 협력을 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5월에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 개최 합의 • 왕이 당중앙 외사판공실 주임, 베이징서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과 회동 - 중국은 파키스탄의 주권 독립과 영토 완전성 수호를 지지…파키스탄은 중국의 강대한 발전을 확고히 지지 • 중국-인도 국방장관 회담 개최(상하이협력기구 국방장관회의 계기)
4. 28. (금)	북한-대내	• 평안북도·황해남북도 농촌 여러 마을에서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한국	• 대통령실, “(美 핵공유 관련) 용어에 집착할 필요 없어”(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 “美 당국자 이야기는 NATO식 핵공유가 아니라는 것이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을 통해 이뤄져 실질적, 실용적 측면으로 볼 수 있어” - “특정 용어를 고집할 필요 없으며 NATO에 핵공유가 있으니 국민들이 그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미국	• 상원 이어 하원서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발의 - 작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 -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장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 and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고문, 수감, 강제노동, 굶주림을 통해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인권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 - 법안에는 △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 북한 인권특사 임명, △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내용이 포함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29. (토)	북한-대내	•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2023 결승경기 및 봄 전국체육축전 폐막식 진행(4.28., 김일성경기장) 보도 - 박정근(내각 부총리 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참석 • 《봄철전국상품전시회-2023》 개막(평양제1백화점) - 곽정준(상업상) 개막사
	북한-대외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조선중앙통신사 통해 한·미 정상회담 관련 입장(4.28) 발표 -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미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임에 로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정녕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 -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과 미국 핵전략자산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 잦은 군사훈련으로 인해 한반도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가 불안정하게 되었으며, 북한은 새로운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 -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종말”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한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 위협”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감지덕지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고 비난 - “적들이 핵전쟁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증대될 것”이라고 선언
	한국	• 김여정 부부장 입장 발표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 비방 억지” 강조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규탄” -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한·미동맹의 핵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 -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다면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北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 - “무례한 언어로 한·미 양국의 국가원수를 비방한 것은 북한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써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
	한·중	• 외교부, 강상욱 주중 대사관 정무공사-中 외교부 아시아담당국장 면담에서 “한·미 정상 성명, 특정국 겨냥 아냐” 설명 - 中,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할 것을 촉구 - 강 공사는 이번 한·미 공동성명의 대만해협 관련 내용은 지난 2021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포함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밝혀 온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
4. 30. (일)	북한-대외	• 워싱턴 선언 관련 비난 논평 발표(조선중앙통신 논평) -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제고할 데 관한 워싱턴 선언은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적 산물”이라고 주장 - 워싱턴 선언의 2가지 주요 내용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 추진은 북한에 대한 핵전쟁의 기정사실화를 의미한다고 주장 - 지금까지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과 대북 전쟁연습을 벌여온 미국이 이번에 ‘정례적 가시성’의 증진을 주장하며 전략핵폭격기, 핵항공모함 타격단에 이어 전략핵잠수함까지 북한 영해 가까이 배치하고 그 사실을 공개한다고 명문화한 것은 “결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비난

일자	구분	주요 내용
4. 30. (일)	한국	• 대통령실, “워싱턴선언,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방미 최고 성과”(이도운 대변인) -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전략적 안보동맹으로서의 확장억제를 강화” - “美가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특히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 - “韓에 대한 美 핵방어 의지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어…워싱턴 선언은 일방적인 선언이 아냐” - “오토크라시(Autocracy) 즉, 권위적인 세력에 맞서는, 데모크라시(democracy) 즉, 자유민주 세력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II

북한 매체 주요 보도

1. 대 내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4.5.)

- 노동신문은 4월 5일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대해 보도함.
 - 김덕훈 내각 총리가 회의를 지도하고 박정근 부총리가 보고하고 양승호 부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1/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이 총화되고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과 올해 알곡생산목표 점령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됨.
 - 더불어 “다음 분기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당이 제시한 12개 중요고지 점령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며 정비보강사업을 계획대로 실속있게 밀고나갈 데 대한 문제, 성, 중앙기관들과 도, 시, 군인민위원회, 농업지도기관들에서 영농사업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데 대한 문제 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으며 이를 위한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됨.

■ 태양절(4.15.) 기념행사 진행(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4.7.~19.)

- 노동신문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태양절을 기념하여 진행된 행사에 대해 보도함.
 - 4월 7일에는 전날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에 리일환 당중앙위 비서, 최희태 평양시민위원회 위원장, 리명철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등이 참석했다고, 전날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진행된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리성학 내각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정남 기계공업상, 김창석 경공업상 등이 참석했다고 각각 보도
 - 4월 11일에는 전날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된 중앙미술전시회 개막식에 리일환 (당중앙위 비서) 등이 참석했다고, 전날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된 영화상영 주간 개막식에 조경준 당중앙위 부부장, 리명철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등이 각각 참석했다고 보도
 - 4월 13일에는 전날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제8차 4월의 봄 인민 예술축전 개막식을 보도했는데, 리성학 내각 부총리, 전경철 당중앙위 부부장, 승정규 문화상 등이 참석함.

- 4월 14일에는 전날 인민문화궁정,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된 웅변모임에 전경철·최학근 당중앙위 부부장, 승정규 문화상 등이 참석했다고, 전날 만경대 혁명사적지에서 진행된 덕성발표 모임에 문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각각 보도했으며, 4월 11~13일 평양면옥에서 제26차 태양절 요리축전이 열렸다고도 보도
- 4월 16일에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당, 정권,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부대, 평양시대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대학 등 명의의 꽃바구니가 진정된 것과, 전날 진행된 태양절 경축 청년학생 야회,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여맹일꾼·여맹원 무도회, 제8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의 경축공연에 대해 보도
- 4월 17일에는 당중앙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 무력기관 일꾼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꽃바구니를 진정한 것을 보도
- 4월 19일에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제8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폐막식에 대해 보도

■ 수중전략무기체계 시험 진행(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4.8.)

- 노동신문 4월 8일 2면은 4월 4~7일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수중전략무기 체계시험의 사진과 기사를 보도함.
- 국방과학연구기관은 “4월 4일 오후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에서 시험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은 1,000km의 거리를 모의하여 조선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71시간 6분간 잠항하여 4월 7일 오후 목표가상수역인 함경남도 단천시 룡대항 앞바다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 되었다고 보도
- 신문은 무기체계가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고 북한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며 전망적인 우리 무력의 우세한 군사적 잠재력”이라고 전함.

■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 진행(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4.11.)

- 노동신문 4월 11일 1면은 전날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로 진행된 제8기 제6차 확대회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신문은 회의에서 “나라의 방위력과 전쟁준비를 더욱 완비”하는 데 중요한 군사 문제들이 토의되었고, “침략전쟁준비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현 정세를 심도있게 분석한 데 기초하여 우리의 군사적 선택을 더욱 명백히 하고 강력한 실천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엄격히 갖추는 것”에 대해 제기하였으며,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 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 하였고, “전선 공격 작전계획과 여러 전투 문건들을 료해”함.
- 회의는 “당과 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더욱 선명히 하고 굳건한 방위력과 압도적인 공격력 제고를 위한 무력강화 행정에서 또 한번의 큰걸음을 내딛은 사변적 계기”가 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5차 전원회의 진행(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4.12.)

- 노동신문 4월 12일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5차 전원회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회의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강운석·김호철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 참의원 소환 및 선거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 및 채택됨.

■ 김정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 현지지도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4.14.)

- 노동신문 4월 14일자 1~3면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로 진행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시험발사는 “대출력 고체연료 다계단 발동기들의 성능과 단분리 기술, 각이한 기능성 조종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1계단은 표준탄도 비행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 분리시동 방식으로 미사일의 최대속도를 제한하면서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됨.
- “분리된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앞 10km 해상에, 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km 해상에 안전하게 낙탄”되었으며, 《화성포-18》형 무기체계는 “가장 강위력한 핵심주력수단으로서 중대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 될 것임.
- 김 위원장은 《화성포-18》형 개발이 “전략적 억제력 구성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며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며, “공화국 정부의 대적대응 투쟁방침을 자위력 강화발전의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나가는 것은 우리 국방과학 력량이 견지하여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강조함.

■ **김정은, 평양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 참석(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4.17.)**

- 노동신문 4월 17일자 1~4면은 전날 진행된 평양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준공식에 참석하여 김덕훈 내각 총리, 조용원 당중앙위 조직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중앙위 비서 등 당·정 지도간부들과 준공테이프를 끊고 군인 건설자들의 노고를 치하
 - 리일환 당중앙위 비서는 준공사에서 “인민을 이 세상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며 사색도 실천도 철두철미 인민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일관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에 떠받들려” 화성지구의 변화가 이룩되었다고 말하며 김정은 위원장에 경의를 표시
 - 김정은은 연설에서 평양시에 5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해 당과 국가가 최종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숙원사업이라고 설명하고, 모든 군민 건설자들이 수도뿐 아니라 지방건설에서도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독려

■ **김정은, 내각-국방성 직원 간 체육경기 관람(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4.17.)**

- 노동신문은 4월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절을 계기로 개최된 내각과 국방성 직원 간 체육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김덕훈·조용원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과 리일환·리영길 등 당중앙위 비서 등과 함께 광명성절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를 관람하였으며, 딸도 동행
 - 전체 참가자들은 국가의 융성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관건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2023년에 당과 인민의 기대에 부응할 성과들을 가져올 결의를 다짐

■ **김정은, 국가우주개발국 현지도(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4.19.)**

- 노동신문 4월 19일자 1면은 전날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도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도했으며, 딸과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중앙위 부부장,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박지민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등이 동행
 -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이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 제8기 제5차, 제6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우주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우주과학기술 연구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 높이 평가

- 또한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위협과 도전을 계단식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정찰위성 보유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와 의의를 강조하고, 정찰위성 획득은 철저히 북한의 국가주권과 정당방위권에 속한다고 주장
- 4월에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한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끝내고 향후에도 다수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하여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구축할 것에 대한 과업을 제시

2. 대 외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4.1.)

- 조선중앙통신은 4월 1일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발언 관련 담화를 보도함.
- 김 부부장은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미국 핵무기 배치나 핵무기 개발을 하자는 호소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음흉한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고 비난함.
- “자기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나 자기의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매우 위험한 정치적 야욕의 발현”이며, “핵망상에 집념하다가는 오히려 로씨야의 핵조준권 안에서 보다 선명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단언

■ 논평 “전쟁광들의 망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조선중앙통신, 2023.4.2.)

- 조선중앙통신은 4월 2일 한·미 군사훈련 프리덤 실드, 쌍룡훈련과 관련하여 비난하는 논평을 게재함.
- 논평은 “《평양점령》과 《참수작전》을 공공연히 뇌까리면서 그것을 실전에 옮기기 위한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적대행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며 비난
- 북한이 “실제에 있어서 핵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빈말을 모르는 우리 인민과 군대의 특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핵을 두려워 할 줄 모르고 날뛰는 자들에게 만약 전쟁억제력이 효력이 없다면 우리의 핵이 그 다음은 어떻게 쓰이겠는가 하는 것이야 너무도 명백할 것”이라고 주장

■ 한대성 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 주재 북한 상임대표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3.4.6.)

- 조선중앙통신은 4월 6일 한대성 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 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전날 발표한 담화 내용을 보도함.
 - 상임대표는 유엔 대북 인권결의를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하며 또한 “《정보권 침해》, 《자의적 구금과 처벌》, 《사회적 차별》, 《탐치》, 《사생활 감시》와 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되어 있는 가장 정치화된 험잡 문서”라고 비난
 - 또한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에 불과하고 자기의 국권조차 없는 괴뢰역적 패당이 감히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걸고든 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인민의 제도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천명함.

■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에 대한 경고 발표(조선중앙통신, 2023.4.17.)

- 조선중앙통신은 4월 17일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에 대한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경고를 보도함.
 -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를 소집하려 하는 것과 관련하여 입장 발표문을 공개
 - 북한의 당연한 자위권 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묘사하며 문제시하는 것은 북한의 국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
 -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 개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지역의 안전 우려에 대해 자국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국민의 평화적인 삶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조치라고 주장
 - 한국과 미국은 2023년 북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과 전면전쟁을 가정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지속해왔으며, 북한이 이렇게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전망적인 위협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정당방위 수단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렇게 해야만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조선반도 안전 상황이 통제권 안에 있게 된다”고 주장

■ 김정은, 중국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3연임 축전(3.10) 관련 답전 수신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4.18.)

-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4월 18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3월 10일자 축전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답전을 게재함.
 - 시진핑 주석은 4월 12일 발송한 답전에서 전통적인 북중 친선관계는 오랜 기간 국제정세 변화의 시련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굳건해지고 있다고 기술
 - 현재 국제 및 지역 정세는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으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북중관계를 발전시켜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고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
 -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하에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기술

■ 최선희 외무상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4.21.)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4월 18일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관련한 최선희 외무상의 4월 21일 담화 내용을 보도함.
 -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가 선사했거나 인정해준 데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며 실제적인 핵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
 - 북한에게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를 설교”하며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 무도한 내정간섭 행위”이고, “철두철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불 핵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 우리 핵보유의 본질이 있다”고 주장
 - G7은 극소수 국가들의 폐쇄된 이익집단에 불과하며 결코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대변하지 않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 보장에 복종하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폄하
 - 북한은 20년 전에 이미 핵확산방지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하여 조약상의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주장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입장 발표(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4.29.)

-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에 관련하여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이 4월 28일에 발표한 입장을 게재함,
 - 김여정 부부장은 4월 26일 한·미 정상이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실행력 제고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여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의지를 명문화하였다고 주장

- 한·미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협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정녕코 환영 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
-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설립과 미국 핵전략 자산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 잦은 군사훈련으로 인해 한반도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가 불안정하게 되었으며, 북한은 새로운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
-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한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 위협”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감지덕지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고 비난
- 북한은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였으며,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증대될 것”이라고 위협